

### 우주 체류 쥐 정자 수정 정상

우주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한 쥐의 정자가 정상적인 수정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환한 쥐의 정자로 수정해 출산한 새끼에게서도 우주체류의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일본 오사카대학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7일 전했다.

연구팀의 이번 성공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개발한 전용 쥐우리 덕분이다. JAXA가 개발한 쥐 우리는 쥐가 먹고 싶을 때만 물과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 JAXA는 바람으로 배설물을 우리 벽면으로 날려 정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쥐는 한마리씩 개별 우리에 들어가지만 옆에 있는 쥐가 보이도록 해 안심시켰다. 우리 별로 카메라를 설치해 사육상황을 지상 직원과 수의사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 아내 4명 부양할 돈 필요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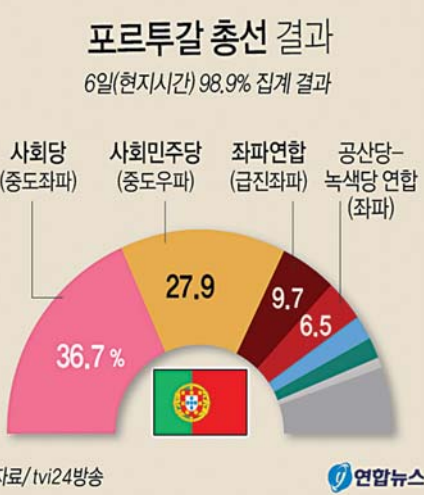
네 명이나 되는 아내를 부양하느라 돈이 필요했다면서 영수증을 복사하는 수법으로 상품 대금을 이중으로 받아 쟁전 태국 남성이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7일 온라인 매체 더 타이거에 따르면 태국 범죄진압국(CSD)은 방콕 북부 파툼타니주 경찰과 협조해 파농삭(49)을 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

파농삭은 대금이 적힌 영수증을 복사해 물품 대금을 이중으로 받아 쟁했다. 그러나 한 업체에서 업무 친척이 돈을 받으러 온 파농삭을 보고 업무에게 확인 전화를 했고, 이미 상품 대금을 지불했던 이 업무가 회사에 항의하는 바람에 파농삭의 범죄 행각은 들쭉났다.

확인된 사기 금액은 50만 바트(약 2,000만 원)이었지만,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를 감안할 때 총액은 최대 100만~200만 바트(4,000만~8,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연합뉴스

### 그래픽 뉴스



# 북 김명길 “추후 회담 미국 입장에 달려”

## “미, 판문점 회동 후 100일 가까이 쉼법 못 만들어” “끔찍한 사변 있을지 누가 알겠나” 위협성 발언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해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의 판문점 회동 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불만을 토로한 뒤, 미국에 북한의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 공항 3터미널에 도착한 뒤 일반 통로로 나와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대사가 말한 ‘역스럽다’는 ‘역겹다’라는 뜻의 북한말로 이번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실망스러운 입장을 강도 높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2주일 후 회담 진행하냐”는 질문에는 “2주일 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나”고 반문한 뒤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100일 가까이 아무런 쉼법을 만

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거 같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면서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고 보자”며 위협성 발언도 했다.

이후 곧바로 탑승 수속을 밟은 김 대사 일행은 이날 낮 12시 출발하는 평양행 고려항공 JS152편을 타러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미국이 어떻게 제안해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그건 미국 측에 물어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에 원하는 바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제안했으니 미국 측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김 대사 일행은 서우두 공항 제3터미널에서 나와 곧바로 평양행 환승편이 있

는 제2터미널로 이동했다.

김 대사는 제2터미널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한 소감을 묻자 “미국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은

기대했고,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새로운 방법이 없었다”면서 “완전히 빈손으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또 미국 측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표명했던 김명길 대사는 스톡홀름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하면서 미국 측이 기대한 대로 2주 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파리 ‘몰랭루즈’ 창립 130주년 공연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댄스홀인 파리 ‘몰랭루즈’ (붉은 풍차) 창립 130주년을 기념해 6일(현지시간) 열린 공연 모습. /연합뉴스

## 북 어선-일 어업단속선 충돌

### 북한 어선 침몰·선원 10명 구조

북한의 어선과 일본 정부의 어업 단속선이 동해상에서 충돌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북서쪽 350km 지점 만바다에서 수산청의 어업 단속선 ‘오쿠니’와 북한의 대형 어선이 충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로 북한 어선의 승조원 20명 가량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북한 어선은 완전히 침수됐다.

일본의 어업 단속선은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한 상태로, 북한 승조원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여 10여명을 구출했다.

사고 발생 후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현장에 순시선과 항공

기를 보내는 한편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가 난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대화퇴 어장으로 북한 어선들이 자주 조업하는 수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퇴 어장의 대부분은 한일 공동 관리 수역에 속한다.

일본은 이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공선(公船)으로 보이는 선박은 지난 8월 23일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향해 “(북한) 영해에서 즉시 퇴거하라”며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수산청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어업 단속선이 충돌 전 북한 어선을 향해 주변 해역에서 나가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퇴거 경고를 하던 중 북한 어선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홍콩 ‘복면금지법’ 나흘째...유령도시 변모 지적

시위 사태의 확산을 막겠다며 홍콩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시위 사태가 되레 격화하면서 홍콩이 ‘유령 도시’처럼 변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

을 발표한 4일부터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사흘 연속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삶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대형 쇼핑몰이 문을 닫고 주요 마트마저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마트마다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전날 홍콩 최대의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은 홍콩 전역에서 영업하지 않았다. 대형 태풍이 불어닥쳐도 문을 열던 세븐일레븐이 영업을 중단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복면가면법이 시행돼 홍콩 전역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

이는 홍콩지하철공사(MTR) 4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연합뉴스

### 일본 원전 오염 목초 땅에 섞어 처분 논란

일본 지자체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목초를 잘게 잘라서 흙에 섞는 방식으로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양이 오염되는 데다 지하수를 통해 다른 농지도 방사능에 노출할 수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미야기현 북부의 오사키시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오염됐던 목초를 잘게 잘라서 비료처럼 땅에 섞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 미야기현이 처분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오염 목초는 2만t에 달하는데, 이중 4분의 1 정도가 오사키시에 있다. 시측은 올해까지 2년간 시범 사업을 마친 뒤 향후 7년간 오염 목초를 땅에 섞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주민 아베 주에쓰(80) 씨는 “더러워진 것을 억지로 자연계에 내놓는 것으로,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땅에 오염된 목초를 묻으면 눈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시스템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